

제 5 회  
점고  
신인  
춤  
제전  
푸른  
춤꾸

99.3.19-21/경성대학교 소극장

19일(금) 하오7시  
20일(토) 하오4시,7시  
21일(일) 하오4시

특별후원:경성대학교  
후원: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MBC 문화방송, PSB 부산방송  
주최: 민족미학연구소 ( ☎ 051-241-5898 )

# Part 1



## 비에로의 회상

●안무: 양세진 ●출연: 양세진, 윤경호, 김도경

꿈을 좇아 사랑을 좇아 다니며 즐겁고, 방황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이제는 빛바랜 초상처럼 남아 있다.



## 그대 앞에 봄이 있어

●안무/출연: 정경희

고통과 고뇌 속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는 희망이 세상과 함께 흐르고 흘러서는 어디에서나 스며들어 내 삶이 결코 절망할 정도로 불행하지는 않다.



## 소록의 봄

●안무/출연: 이미라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평상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따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애환과 욕망을 인정하고 우리 삶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이제는 투명해지고 싶습니다

●안무/출연: 박정은

마음을 잔으로 비유했을 때 잔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으므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잔이 반밖에 채워져 있지 않았을 땐 이를 원망하여 욕심이 생겨나고 마음에 많은 구김이 가게 됩니다. 그 구김을 펴고 수정체처럼 투명해지고 싶습니다.



## 빵 먹던 날

●안무: 김서리 ●출연: 김서리, 송윤경

얼어 먹고, 주워 먹고, 훔쳐 먹고 호주머니 손 넣고 땅 보다 하늘 보다 넘어지면 큰돌 하나 베게 삼아 감은 눈 두손 가려 얻은 까만 세상 사라질까 두려워 움츠리고, 움츠리고...

# Part 2



## 춘매화전

●안무/출연: 정유리

사군자의 하나로 잘 알려진 매화는 절개, 지조의 꽃 (梅一生寒不賣香). 춘앵무의 형식을 바탕으로 제한된 공간안에 조그만 몸짓으로 무한 세상을 담는다.



## 헤어진 그 후로

●안무/출연: 김민주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면 제각기 저마다 이별의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 이별에 대한 색깔이 있다면 나는 이런 색깔일 것이다.



## 영원한 시간속에

●안무/출연: 이성희

흐르는 시간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지금 그대의 내 모습을 영원한 시간속에 찍어 남겨두고 싶다.



## 囚

●안무: 김유경 ●출연: 김유경, 안혜진

옛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갇힌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석진 곳 어느 한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여성들의 그늘진 자리를 또한번 되새겨 본다.



## 돌웃음

●안무/출연: 이봉진

춤을 춘다  
무엇이 나를 이리도 춤추게 하는지...  
잃어버린 것들을 간직하기 위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위해,  
춤·춤·춤



## Subway

● 안무/출연: 허경미

지하철이 가 주기만 한다면, 시원하게 달려주기만 한다면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있는 곳, 그 너머 내가 꿈을 꾸는 곳. 저 동해 끝자락에 멈춰 제2 건국의 그늘 아래 지쳐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돌아서서 기지개 한번 켜고 고래사냥이나 한번 나서 볼까



## 슬픈 노래

● 안무/출연: 장 오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마지막 슬픈 나의 몸짓

- 1995. 부산대 무용학과 졸업
- 1994. 12회 전국대학생무용콩쿨 금상 수상  
12회 부산무용콩쿨 동상 수상
- 1995. 자유 현대무용단 창단공연,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창단공연  
신인출제전 (1회)-젊고 푸른 춤꾼 한미당 / 그리움 그리워질 때 / 안무, 출연  
현. 자유로운 춤꾼으로 활동



## 외면속의 나

● 안무: 장선미 ● 출연: 장선미, 김선정

인간의 양면성, 외면과 내면은 시간속에서 늘 함께 공유하지만 인간의 실체로 보이는 건 외면의 모습일 뿐, 내면속의 그것은 볼 수 없다. 나는 나의 시간속에서조차 나의 내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면 속의 나를 보려고 이 춤을 춘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안무: 김종덕  
● 출연: 김종덕, 박미영, 조영미, 노영경, 김도연, 김현주, 장향인, 김민주

한 그루 나무가 인간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는 동안 우리는 이를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고, 또 손을 내밀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쓸쓸히 밀동만 남은 나무는 쓰라린 회한과 함께 마지막 선물로 내게 어미의 품처럼 따스한 안식의 공간을 남겨 주었다.

- 1995. 경성대 무용학과 졸업, 부산대 예술대학원
- 1995-8. 신인 출제전(1회~4회)-젊고 푸른 춤꾼 한미당 / 안무, 출연
- 1995. 부산 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솔리스트 5인진" / 2198 / 안무, 출연
- 1996. 배김새 기획공연 / 회향-숨쉬는 바다를 꿈꾸며... / 안무, 출연  
진. 춤매 배김새 단원, 부산시립무용단원  
현. 서울시립무용단원

참조  
출연



## trou·ble[trábl] n. 근심, 교화, 불화

● 안무: 김보영 ● 출연: 정기정, 고수현, 박동민

말의 리듬에 따른 움직임으로 배우와 연출, 그리고 배우 자신과의 싸움을 표현

- 1989. 신라대 무용학과 졸. 1980-96 하이로비 현대무용단 활동
- 1993. JADE '93 (JAPAN DANCE EVENT '93) 초청공연 (동경, 야기다)
- 1996. KIMBOYOANG DANCE WORKS 1996 (부산문화회관대강당)
- 1997.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안무의상 (태양아트홀, 학전소극장)
- 1998. KIMBOYOANG MOVEMENT. 1998 (태양아트홀)  
현. 부산예술학교 출강

조명



서자경, 장훈석

진행

안태호, 최정완, 황해순, 천기호, 이상운

## 이런 봄에는 봄같지 않은 봄춤도,

어느때인들 춤추지 못하라마는 봄을 맞아 추는 춤은 또다른 감흥을 일으켜 줍니다.

꽃이 피고나서 잎이 떨어 봄나무처럼 봄날의 춤은 몸을 먼저 던지고서는 생각을 나게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몸쓰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봄춤은 육체로 사유한다는 춤의 본령을 어느 춤보다도 강력하게 예시해 줍니다.

한편 봄이 와도 봄같지 않은 것이 일터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만의 느낌만은 아닐 겁니다. 내면의 풍경을, 아리따운 청춘을, 삶의 고뇌를 그리는 춤도 좋습시다마는 봄같지 않은 봄춤을 추는 것도 춤추는 이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없이 사는, 사는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들과 더불어 하는 춤은 춤의 사회적 의미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아름다운 춤은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 주지만,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도 훌륭한 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래도 아름다운 예술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먼저입니다.

다섯번째 맞는 젊고 푸른 춤판을 위해 협찬해주신 경성대학교 문화부를 비롯하여 뒷일을 돌보아 주신 분들께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신의 춤세계를 위해 정진해온 1,2,3,4기 언니들과 이 춤판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해 준 특별찬조작품의 안무자와 출연진, 그리고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들께 고마운 정과 함께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1999년 3월 19일

민족미학연구소